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Thank you

2015
Happy New Year



2015. 01/02



DAIL



함께 꿈을 퍼주세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추운 날씨로 몸과 마음도 얼어 붙어가는 한겨울입니다. 하지만 밥퍼의 밥솥에 하얀 김이 오르고, 봉사자들의 밝은 웃음 속에 따스한 온기가 더해집니다. 지난 12월 25일은 27번째 거리성탄예배로 무의탁 노인과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등과 함께 따스한 온기를 모아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5년이 시작된 1월입니다. 신년이 되면 모두가 새 마음으로 한 해를 내다보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 역시 다시금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벗님들께 인사 드립니다.

제가 처음 밥을 퍼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때에 저를 보고 '미친놈' 고상하게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나라님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잠시일 뿐 할 수가 없다고, 해 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일의 이름으로 10개국 16개 분원에서 매일 마다 7000명 이상이 따스한 밥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날마다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다일의 가족 한분 한분들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이 밥퍼나눔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다일의 날(11월 11일)" 시작한 라이스 팟 릴레이!!! 생쌀이(생명의 쌀 이어가기)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어지는 쌀로 청량리를 넘어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작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마다 밥으로 배부르며 밥퍼에서 꿈퍼로 이어져 아이들마다 꿈을 활짝 펼치는 날을 꿈꿉니다. 2015년 저와 함께 꿈을 퍼주지 않겠습니까?

작은 형제, **취** 임드 불림

- 02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와 AZAMOI 만나 '아자아재'
- 04 하나투어 배타고 빵퍼로 GoGo~!
- 05 미싱교실에 희망을!

- 08 성탄소식
- 11 라이스팻릴레이
- 14 서울메트로 기관사에게 나눈은
- 16 영성수련 1, 2 단계를 경험하며



08



11



16

- 19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
- 20 현장이야기
- 24 봉사이야기
- 26 후원감사
- 28 후원안내



20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이혜진, Byeol Ellie Choi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5년 1월
 발행처 | 다일복지재단
 주소 | 130-857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AZAM 식량지원 사업

변창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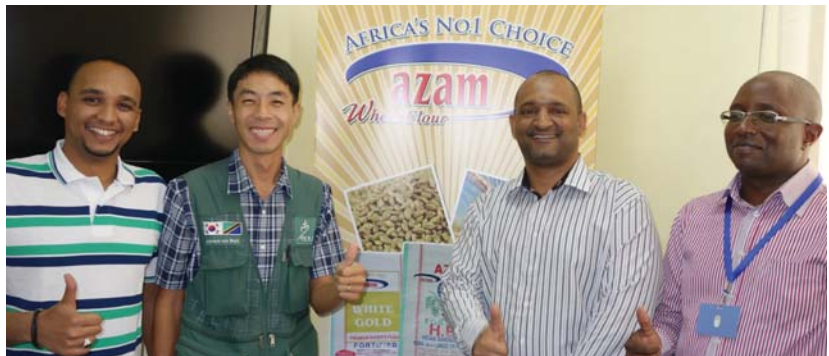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와 AZAM이 만나 '아자아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탄자니아도 물가가 높습니다. 위정자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기에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버거워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달픈 삶이지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쿤두치 채석장은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한화 2,200원) 정도를 벌면서 월세 TSH 30,000(한화 20,000원)과 생활비, 자녀 양육비를 내야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호프클래스를 열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결연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식료품과 정기적으로 학용품, 옷, 신발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식품 중에는 옥수수 가루가 있는데 탄자니아 사람들이 먹는 주식인 '우갈리'가 바로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생산하는 기업 중 대기업으로는 'AZAM(아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ZAM은 쉽게 이야기 하면 탄자니아의 삼성과 같이 동 아프리카의 다국적 거대 기업입니다.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모잠비크 등 8개국에서 주스, 아이스크림, 우유 등의 식품부터 선박사업, 위성방송, TV 생산까지 탄자니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2014년 8월, 체류비자 갱신을 위해 이민국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신사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소개하였고 아이들에게 AZAM에서 만든 옥수수 가루와 주스를 나누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신사분이 자기가 AZAM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도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옥수수 가루, 주스를 할인해 주고 밥퍼센터까지 직접 배달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옥수수 가루는 시중 보다 30% 싼 가격으로, 주스도 할인을 받고 운반비도 절약하면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이어가서 회사 차원에서의 밥퍼봉사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1월에 개원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기업과 협력하고자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제2의, 제3의 AZAM 같은 기업들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나투어 배타고 빵퍼론 GoGo~!

하나투어는 2011년부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사업을 지원하며 꾸준히 사회공헌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매년 2천만원의 후원금을 5년간 지원하기로 하여 프놈끄라움 빈민촌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투어에서 후원한 후원금은 매일 신선한 빵을 만들어 지원하는 '빵퍼'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톤레삽 호수의 수상 빈민촌 주민들을 위한 '배지원' 사업에도 사용됩니다.

'빵퍼'사업은 매일 만들어지는 빵을 밥퍼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뢰피해자마을, 빈민촌 유치원과 초등학교, 프놈펜 언동마을의 아이들에게도 나누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보루빵으로 시작되었던 '빵퍼'는 단팥빵, 모닝빵, 도넛, 바게트 빵 등 점점 다양한 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빵 기술을 전수하여 빈민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배지원'사업은 톤레삽 호수의 수상빈민촌 주민들 중 배를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생선을 잡아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하여 자립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배가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의 통학용 배로 지원되어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투어 여행상품인 **“캄보디아 1일의 기적”**이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주관한 '2014~5 우수여행인증상품'에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되어 우수인증마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밥과 빵을 나누는 '밥퍼센터'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 및 청소를 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빵퍼와 배지원사업

신수영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부원장



미싱교실에 희망을!

네팔 다일공동체는 2008년 1월 11일 네팔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누하르 강변에 개원하였습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구걸을 하거나 마을을 배회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쳐도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가난은 다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여 실력이 향상되면 학비를 내고, 교복을 입고, 학용품을 구입하고, 한 달 동안의 기본적인 양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와 연결하여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의 부모를 초청하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의식을 바꾸어 주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 먼저 부모들의 의식개선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변화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팔 다일공동체는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네팔어를 가르치며 손뜨개와 미싱을 가르치는 여성직업기술학교를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미싱 20대와 아주머니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장을 얻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팔 다일공동체 미싱 교실에 희망을 주십시오!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지난 2년 동안 여성직업기술학교를 통하여 얻게 된 것들 중 가장 큰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구걸을 하거나 놀고먹는 삶 외에는 희망이 없었던 빈민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후원물품을 전해주는 수여자와 후원물품을 전달받는 수혜자의 관계만을 생각했기에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삶을 바꾸어 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직업기술학교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자리를 찾으며 그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팔에서는 특별히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그러한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여성직업기술학교를 통해서 기술만 가르치지 않고, 언어도 가르치며 또 전시회에 아주머니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순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삶에서 계획하고, 노력하여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삶으로 작게나마 변화되고 있어 모두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교훈처럼 받는 자의 삶에서 일하며 나누는 자의 삶을 이루어 가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했으니 계속해서 스스로 아름다운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되도록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랑의 열매로부터 2년 동안의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계속해서 일을 배우고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경비가 적은 곳으로 옮기고, 직원의 수를 줄이고, 교복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들의 미싱 실력이 아직은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신입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자원 확보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초급반, 중급반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수준급에 있는 분들에게 2년 동안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 기반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정성이 네팔의 가난한 어린이와 가정에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아이들과 여성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서 구걸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을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사랑으로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Our children Our hope!



국내거리성탄예배 MERRY C H R I



27번째 거리 성탄예배



모두가 행복한 12월 25일 성탄절.

구유에 누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우리의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 홀로 쓸쓸히 보내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다일공동체에서는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27번째 거리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이지만 문턱이 높아 갈 곳 없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찬양소리가 온 거리에 울려 퍼지도록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진지와 겨울나기 선물들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녹이며 진정한 성탄절로 모두가 기뻐하며 참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금융그룹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한 방한복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준비한 망설로 더욱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봉사로 안전사고 없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어느 때보다 행복한 거리성탄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한 성탄절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담아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온 이웃이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S T M A S **다일공동체의 성탄**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필리핀다일공동체 성탄예배가 열렸습니다. 성탄절에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풍경이듯 우리 센터가 미어터질 만큼 필리핀 빈민촌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모여든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선물이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아이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작은 입술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더욱 잘 성장하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 입어 필리핀다일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모든 후원천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이 함성 들리시죠?^^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필리핀

Philippines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크리스마스!

입김이 나는 한국에 비해 아프리카의 성탄절은 매우 뜨겁습니다. 적도 아래의 태양이 지글지글거리는 뜨거운 성탄절 상상이 가시는지요? 비록 뜨거운 날씨에 눈은 내리지 않지만 성탄절을 보내면서 2014년을 마무리하는 탄자니아 사람들의 마음은 한국인, 전 세계인의 마음과 동일하답니다.

2013년 성탄절에는 밥퍼센터가 완공되기 전이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 못하여 참 많이 아쉬웠는데 2014년에는 호프클래스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꾸며 보았습니다.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 김예린 학생, 데이비드 학생과 함께 큰 양말 모양의 종이에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담긴 사진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며 예쁘게 꾸몄습니다. 자신들의 사진이 들어가니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찌나 잘 만들려고 노력하던지 그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르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각자의 양말이 완성되고 그 양말이 하나의 끈으로 묶여 성탄 트리

위에 자리 잡으니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 되었습니다. 성탄 장식들을 흔하게 볼 수 없는 아이들이기에 눈을 떼지 못하며 마냥 신기해 합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귀한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에는 더욱 더 사랑하고 성장하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탄자니아 Tanzania

다일공동체의 성탄 MERRY CHRISTMAS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씨엠립과 프놈펜에서 동시에 성탄예배를 1,700명의 아이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프놈펜 밥퍼에서는 프놈펜제일교회(윤종철목사님 시무)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 특식과 선물을 준비해주셨고, 씨엠립 다일공동체에서는 빵과 과자, 라면, 음료수 등 성탄 선물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성탄절을 그저 놀며 즐기는 외국 문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알아가길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날씨도 뜨거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열기도 뜨거웠던 성탄절! 어곤 브레야 예수, 메리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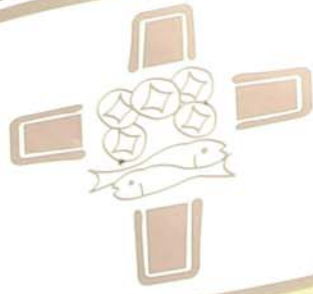


캄보디아
Cambodia



네팔 Nepal

네팔다일공동체는 센터 옆 마당에서 1300명을 초청하여 네팔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셈베리리' 라는 곡에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는 가사를 넣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함께 성탄절을 기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반팔과 맨발로 찾아온 아이들에게 모자와 볼펜, 연필, 필통, 초콜릿, 굴, 포카라에서 만들어 온 소보루빵, 성경책과 성탄카드를 예쁜 봉지에 담아서 천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가 왜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나누는지 아시지요? 단 한 가지, 성경책을 전하여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는 법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도록 위해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밥퍼
Babior

Rice Pot Relay

쌀 이어가기



RICE
POT
RELAY

생명의 쌀나눔 이어가기 운동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이스팟릴레이(생쌀이운동)는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 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
까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밥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쌀독에 생명의 쌀을 담아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여 모두가 '살 맛나는 세상'을 만들고자합니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라이스팟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다일공동체 창립 20주년.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라이스팻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1. 10kg 이상의 쌀을 듭니다.
2. 이웃을 향한 정을 담아 쌀독에 쌀을 붓습니다.
3. 큰소리로 '라이스팻 릴레이가 최고야!'를 외칩니다.
4. 라이스팻 릴레이에 참여하고 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중 자유롭게 기부합니다.
국민은행 467701-01-002291
예금주 다일복지재단(생쌀이운동)
5. 라이스팻 릴레이에 도전하신 후 다음 도전자 2명을 지명합니다.
6. 지명 받은 도전자는 일주일(7일)안에 라이스팻 릴레이에 참여하시고 다시 2명을 지명합니다.
7. 라이스팻 릴레이의 참여 사진과 동영상은 언론 보도와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8. 기부자의 후원 내역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이스팻 릴레이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 2212 8004 www.dail.org



3

1. 다일공동체 홍보대사 박상원님
2. 다일공동체 협력대사 이혜훈님 이계안님
3. 다일공동체 협력대사 황인경님
4. 다일공동체 협력대사 정준하님
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정영택 총회장님
6.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
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5



4

RICE POT RELAY





한국교회가 희망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김동열 기관사
6년째 시간만 나면 밥퍼 봉사...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보답

서울 지하철 1호선 기관사 김동열(52·사진)씨. 야간 근무조였던 지난 3일 아침 그가 향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 밥퍼운동본부였다. 그는 6년째 매달 5~10회 이곳에서 무료배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동료들이 쉬는 시간에 봉사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 명성교회(김삼환 목사님 시무) 안수집사인 김씨는 2000년 예수를 영접했다. “생각해보니 당시 제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정 등 부족한 게 없었는데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던 그의 삶에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3년. 뼈암이라고 불리는 ‘연골육종’이 발병했다. 뼈가 부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난치병이었다. 의사는 생존확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했다. “몇 년 동안 30회 이상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웠습니다. 무척 아프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지요.”

기적처럼 증세는 호전됐고, 2009년에는 지하철도 운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밥퍼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다.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믿음에 행함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온전케 하겠다고 다짐했죠.”

이후 400여 차례 밥퍼운동본부를 찾았다. 소외된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밥과 반찬을 전했다. 이제는 그가 봉사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선교회 회원들과 비신자 동료들도 무료배식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아내와 두 자녀도 뜻을 같이한다. 그의 가족은 기념일마다 일정 금액을 모아 다일공동체를 통해 매년 캄보디아 수성빈민촌에 600달러짜리 나뭇배를 한 척씩 지원하고 있다.

2012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은 남아 있다. 가끔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설친다. 그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라며 “육체의 질병에 대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김동열 기관사

서울 지하철 1호선 김동열 기관사

서울 지하철 1호선 기관사 김동열(52·사진)씨. 야간 근무조였던 지난 3월 아침 그가 향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 다일 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 밥퍼운동본부였다. 그는 6년째 매달 5~10회 이곳에서 무료배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동료들이 쉬는 시간에 봉사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안수집사인 김씨는 2000년 예수를 영접했다. “생각해보니 당시 제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화려한 가정 등 부족한 게 없었는데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행하지 않았습다.”

평탄하던 그의 삶에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3년. 뼈암이라고 불리는 ‘연골육종’이 발병했다. 뼈가 부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난치병이었다. 의사는 생존확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했다. “몇 년 동안 30회 이상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웠습니다. 무척 아프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6년째 시간만 나면 밥피 봉사... 새생명 주신 하나님께 보답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지요.”

기적처럼 증세는 호전됐고, 2009년에는 지하철도 운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밥퍼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다.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 믿음이 행함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온전케 하겠다고 다짐했죠.”

이후 40여 차례 밥퍼운동본부를 찾았다. 소외된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밥과 반찬을 전했다. 이제는 그가 봉사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선교회 회원들과 비신자 동료들도 무료배식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아내와 두 자녀도 뜻을 같이한다. 그의 가족은 기념일마다 일정 금액을 모아 다일공동체를 통해 매년 캄보디아 수상빈민촌에 600달러짜리 나무매를 한 척씩 지원하고 있다.

2012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은 남아 있다. 가끔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설친다. 그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라며 “육체의 질병에 대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글=이샤야 기자, 사진=허란 인턴기자 lsaiah@kmb.co.kr

글=이샤야 기자, 사진=허란 인턴기자 lsaiah@kmb.co.kr



설곡산영성수련 (1,2단계)을 다녀와서

하늘사랑 이순기님

울산대 교육학과 외래교수
상담심리전공

1. 20년동안 고통받았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유의
순간을 경험하는 시간

설곡산을 가기 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 언제나 내 영혼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대해 반드시 해결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도 나에겐 왠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와 교수학습개발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총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상담하였고 보람된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내 속엔 지식의 한계와 학문의 한계를 느끼며 정작 내 영혼의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상담시간이 점점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다.

설곡산을 알게 된 계기는 같은 학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과 삶을 나누면서 그 분의 아픔과 권사님과의 인연때문이었다. 고통이 인간의 힘으로 치유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치유와 회복의 모습으로 예수살기를 삶으로 몸소 실천하시며 살고 계셨다. 권사님은 다일영성생활수련에 한번 가보라고만 말씀하셨다. 궁금해졌다. 그 분의 모습에 공감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보를 찾고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도착한 설곡산은 그야말로 마음의 고향,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편안함을 주었고 이내 침묵으로의 초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러 들어가는 징검다리라 같았다.

최일도 목사님의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실제로 자신이 살아온 살아있는 경험의 세계 즉 그 분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셨을 뿐이었다.

최목사님의 강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침묵 속으로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했다.



지난 20년 동안의 내 삶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며 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스스로의 생각의 감옥에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고통 받고 살아온 세월들이 어찌 그리 슬픈지... 캄캄한 동굴의 세계는 마치 창세 전 암흑 속,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습이었다. 나의 생각과 느낌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실의 세계를 깨닫는 순간 내 속엔 한없는 기쁨의 감격이 벅차올랐다.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지난 세월 나를 정말 화나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속의 화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화가 날 일 입니까?의 질문 앞에서 내 아픔이 가장 크고 아팠다고 느끼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세월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모두 다 내 생각과 느낌의 세계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하며 함께 계셨는데 창세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텐데...나는 눈멀고 귀먹은 소경이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저 연약한 소경이었다.

그동안 나의 상처만 보느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신기하게도 저 산을 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시냇물 소리를 듣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2. 자연을 통해
일체은혜를 깨달은 영성
수련**

**3. 영성수련에
함께 참여한 아들과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



4



5

4. 설곡산 가을여행에 함께하는 벗님들

5. 모든 존재들의 의미를 생각하며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시작

분명 설곡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하나님이 셤다.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은 것은 맑은 물 붓기였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설곡산을 내려와서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책만 보고 준비하던 강의 준비가 달라졌고 성자되기 첫걸음을 통한 설거지 실천을 통하여 조용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청소하듯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다. 사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만나고 내 삶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 살아가기를 통하여 "사랑하라. 아무것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직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살아 있는 땅을 품고 살으렴

학생들에게
김연수

세상의 곱고 이쁜 건
모두 모아 주고픈
사랑스런 딸들아, 아들들아.
마음속에 드넓은 대지를 품고 살으렴.
때론 낙엽지고, 때론 얼어붙어도
끝내 새 생명 싹 틔우고 무성히 길러 내는
살아 있는 땅을 품고 살으렴.

세상의 옹고 좋은 건
모두 다 주고픈
소중한 아들들아, 딸들아.
도도한 해류를 품고 살으렴.
때론 파도 치고, 때론 해일로 뒤집혀도
제 길을 잃지 않고 흐르는
당당한 해류를 품고 살으렴.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대견한 딸들아, 아들들아.
튼튼한 날개 하나 달고 살으렴.
때론 비바람 불고 때론 눈보라 쳐도
끝내 구름 너머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꺾여도 새로 돋는 날개를 달고 살으렴.

엄마 아빠 목숨까지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을
자랑스런 아들들아, 딸들아.
그러면 너희들도 금세 알게 되란다.
넘어지고 꺾여도 소생할 힘이 너희에게 있음을.
인생의 길이 외길이 아님을.
먹구름장 너머 푸른 하늘의
찬란한 태양이 본래 너희의 것임을.



현장이야기

필 리 핀

필리핀 유치원 교사 Ruth 한국 방문기

해외 분원장님들이 모두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계획하는 다일공동체의 연례모임인 '다일홈커밍데이' 워크샵에 우리 유치원 교사 Ruth를 데리고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에서는 최초로 다일공동체 DTS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에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던 Ruth 에게 한국을 방문하고 다일공동체 본부에서 섬김과 나눔의 현장을 체험하는 건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TV나 매체를 통해서만 보았던 서울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니며 두 눈으로 보고 매우



신기해하며 "it's very exiting!"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필리핀 현지에만 살다가 겨울이 있는 한국의 날씨가 많이 추워 몸을 떨기도 했지만 걱정하며 물어보는 한국인들에게 "I'm enjoy~!"라면서 유쾌하게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온 Ruth 은 더욱 견고해진 소속감과 사명감으로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Ruth에게 한국의 정이 담긴 따뜻한 식사를 직접 대접해 주신 조흥식 교수님과 오정순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쫁크니어 마을에 5살 '롬 위닷'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심장판막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모유를 먹지 못하고 구토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4년째 분유와 설탕을 섞어 만든 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생이나 현재 몸무게는 겨우 5kg으로 갓 태어난 아이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부모님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알아보았으나 의사들은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며 진료해 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태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매일 먹는 분유를 사는 것도 여의치 않은 형편입니다. 이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롬 위닷'이 먹는 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국으로 떠난 부모님을 대신하여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연로하신 할머니는 매번 분유를 드릴 때마다 저희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어쨌든, 어쨌든(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누며 돕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오히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롬 위닷'의 아픈 몸이 캄보디아에서 속히 치료 받고 또래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해지도록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도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롬 위닷'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마음껏 뛰놀며 함께 밥을 먹게 되는 날을 위해 손뼉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캄 보 디 아



베 트 남

밥퍼봉사는 삶의 활력소

(롯데리아 직원 소감문) 봉사활동을 하는 게 단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 과자, 책, 옷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롯데리아)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와 협력해서 생활 형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상급식 봉사 활동을 할 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밥을 식탁에 가져다 드리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며 밥퍼 센터 이용자 분들이 영양제, 라면, 우유 등과 같은 선물이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크나 작으나 진짜 마음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큰 물질적인 가치를 가져다 드리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작은 능력을 기부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모님의 애정으로 자라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사회에 많이 기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 Thị Trúc Mai



THANH CONG 의료봉사 시작.

매월 정기후원과 봉사를 해주는 THANH CONG에서 12월부터 밥퍼봉사뿐만 아니라 의료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봉사는 THANH CONG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이 밥퍼센터로 직접 오셔서 진찰과 약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도 병원은 커녕 약을 사먹을 돈조차 없어서 아픔을 참아야 했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직접 찾아와서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주는 THANH CONG 직원들과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들이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중다일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흑룡강성이 고향인 메이웨, 트엔룽, 후이쩐 3남매입니다.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과 살면서 호적도 없이 외지로 돌면 10살, 8살이 되도록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호적 등기를 하고 정식 수속을 거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큰 언니(메이웨, 여, 한족)는 10살이지만 학년반 반학기를 준비해야만 가을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5살 막내(후이쩐, 여, 한족)가 얼마나 총명하고 귀여운지 벌써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니 시골 시골~ 집안에 생기가 돋니다!

11월 11일 다일의 날 행사를 통하여 STS도시개발(대표 김현석)과 중국 다일공동체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김현석 대표님은 늘 기회만 되면 주차장이나 식당에서 봉사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는 귀한분이십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중국 다일어린이집을 소개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직접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한 중국 다일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다일공동체와 STS도시개발의 아름다운 만남이 아이들을 통하여 큰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현재 다일어린이집에는 6명의 고등학생과 4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업 상 노트북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노트북을 사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이 있다면 한국의 다일복지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아 유용하고 소중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와 벨린다는 결연아동으로 자매 지간입니다. 엄마는 같지만 아빠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데 이들 역시 아빠가 서로 다릅니다. 엄마가 네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동결연을 위해 처음 안젤라의 엄마를 만났을 때에는 네 명의 남자 중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고 오직 네 명의 아이들만 줄줄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허름하고 낡은 옷이 무색할 정도로 엄마의 얼굴은 빛나게 아름다웠고 참으로 선하고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 중국다일공동체



중 국

새가족

STS 도시개발
(대표 김현석)과
중국 다일공동체
자매결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습니다!

탄 자 니 아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하지만 남편 없이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무거웠는지 9월에 암 선고를 받고 12월, 아이들을 홀로 남겨 둔 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켈빈(13살), 안젤라(12살), 벨린다(8살), 조셉(4살). 아빠는 서로 달랐지만 한 엄마 밑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던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슬픔도 가시기 전에 흩어져야만 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 한 칸이 매우 저려웁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동결연이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4월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인후암이 뇌종양으로 머리 전체로 전이된 김00님이 1개월~2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다일작은천국으로 입소하셨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김00님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이야기, 생애 있어서 가장 기뻐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합니다. 코에서는 자주 핏덩어리가 쏟아지고 병으로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벽에 머리를 찢는 일도 있지만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을 되뇌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의 권유로 직접 세례문답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김00님은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15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던 큰형님과 남동생들과 연락도 하게 되었고, 직접 만나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형제들과의 만남의 시간 이후, 큰형님께서서는 통영에서 나는 해산물과 고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돼지감자와 고구마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다일작은천국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형제의 우애를 돈독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낼 생각에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00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세요. 다일작은천국이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천국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목표예요

3.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4. 작은천국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도로교통공단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시는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여러분이 밥퍼 나눔봉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밥상공동체 어르신께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한 하루 배식비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다녀가신 주방이 반짝반짝 깨끗했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뵙길 소망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분들과 전 환경부장관 유영숙 박사님께서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최일도 목사님의 아들 최산형제님도 연구원의 일원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귀한 섬김과 나눔에 어르신들뿐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까지 마음이 훈훈해졌는데요, 다음을 다시 기약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SGI 서울보증

SGI서울보증 임직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밥상공동체 가족들의 한 끼 배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각자 본인이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하시고 마음이 뿌듯했다며 오히려 좋아하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반짝인 관심으로 그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신 SGI 서울보증팀! 다음에 꼭 다시 반가운 모습을 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아씨시오홀딩스

우리의 오랜 동반자인 동아가족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잊지 않고 꼭 한번 오셔서 배식에 함께해주시고 사랑의 손길도 전달해주신답니다. 역시 동아씨시오그룹 가족들과 함께 한 배식활동은 그야말로 유쾌, 상쾌, 통쾌 그 자체였는데요, 밥퍼 봉사 뿐만 아니라 사랑의 후원금과 더불어 밴드, 박카스, 비타민으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렸답니다.



태진인터내셔널

태진인터내셔널팀은 자주 밥퍼에 오시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밥퍼 배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드실 김치를 직접 김장봉사로 담궈주셨습니다. 즐겁게 웃으며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던 태진인터내셔널팀, 정말 최고입니다!



샘물고등학교

샘물고등학교의 예쁜 우리 학생들은 수능을 갓 마치고 5일 동안이나 봉사를 했답니다. 처음엔 미숙했던 손길이 하루, 이들이 지나면서 점점 숙달된 실력으로 어르신 진지를 거뜰히 준비했답니다. 더불어 마음도 점점 더 깊어지는 샘물고등학교, 졸업하고 꼭 다시 찾아오길 약속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옮겼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죠. 바로 서울고등법원 가족들이 밥퍼에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판사님 등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밥퍼에서 주걱과 국자를 들었답니다.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시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곳에 와야죠!"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모두 감동했습니다.



헤브론스타

마지막 단체는 처음 밥퍼에 오신 헤브론스타 팀인데요. 헤브론스타 임직원분들은 이번에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회사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랑의 후원금을 가지고 밥퍼에 찾아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신규후원회원 11.22~12.21</p>	<p>(주)스파코순해사정, (주)어빌리티시스템즈, (주)오토기기, (주)태진인터내셔널, (주)티브로드동, 윤예원가족, ASCENAGL, Darren kim, 강서라, 고영상, 고주영, 국민은행모금함권명숙, 권민기, 권상인, 권순철, 권영규, 권유미, 권은희, 금융위원회신윤재, 금융투자협회, 기주남, 김계현, 김도환, 김동식, 김득중, 김미비, 김봉선, 김순애권사, 김연상, 김영란, 김영희동태탕모금함, 김용구, 김용덕, 김운섭, 김은영, 김은하, 김은혜, 김재성, 김정언, 김정현, 김하영, 김현석, 김현정, 김현준, 김혜경, 김혜진, 김효식, 김효정, 나현지, 남규락, 도현구, 동아사우나(모금함), 동아약국모금함, 드림미션, 롯데백화점모금함, 문래중두드림반, 문병용(성탄행사), 문세준, 문세호, 문은희, 문정환, 민지영, 밀양교회, 박상택, 박성자, 박슬기, 박승철헤어천안아산, 박인준, 박재언, 박지원, 박창욱, 박해숙, 박해순, 박현경, 박형배, 방종근(다일작은천국), 배성주(뉴욕), 백성선, 백승원, 백지숙, 북서북된성탄, 새장승포2여전도회, 서영숙, 서울고등법원, 서울메트로신답승무사업소, 서울보증보험(주), 성기훈, 성봉희, 소망교회김영숙(생쌀이), 소망교회윤정용(저금통), 손병성, 송민정, 송정근, 송희정, 신경은, 신동석, 신성철, 신옥순, 신태희, 심은보, 아이티더블류피피앤에, 안성근, 안효윤, 알리안츠생명(생쌀이), 양남규, 양선예, 양정택, 엄정후(김정숙), 엄명호, 엄보람기덕, 영월축복교회, 영월축복교회여전도회, 영진, 오성수, 오정원, 옥영환/장금복, 용일윤지아기, 우리은행생문, 유영숙, 윤보라, 이명희, 이병욱/김경희, 이삼주, 이상숙, 이상은, 이선경, 이승경, 이요순, 이원경, 이윤정, 이은비, 이이순, 이재환, 이정선, 이종재, 이준호, 이진욱, 이향열, 이현주, 이현희(주승진), 이혜민, 이희영, 임경희, 임만성, 임우경, 작업김미림, 전농중학교2-6, 전지윤, 정가인, 정상호가섭나섭, 정상희, 정자영, 조미경(남은지), 조신강, 조신철, 조옥희, 직업이화준, 진웅섭, 최선호, 최철우, 파리바게트모금함, 파워코리아, 표경현, 풍기중학교, 하대용(한호포럼), 하이봉, 한남대벗님들, 한수동, 한승련, 한시윤(한경렬), 허남북, 헤브론스타(주), 현진수, 황순연, 황은정, 효실교회</p>
<p>밥퍼나눔운동본부 후원물품 10.21~12.20</p>	<p>SG&G 굴 10box, 단감 20box, 경희초등학교 김치 18box, 국가인권위원회 쌀 400kg, 농협물류 쌀 300kg, 동아쏘시오홀딩스 박카스 20box, 드림재단 빵 7200개, 무명 굴 15box, 무명 쌀 10kg, 무명 쌀 80kg, 무명 쌀 80kg, 박철한 쌀 200kg, 뷰티플마인드 쌀 200kg, 산골식품 된장 30kg, 삼오종합식품 고추장 1box, 서울메트로 신답승무사업소 쌀 340kg, 서울우유 우유 2016개, 석춘자 쌀 20kg, 송일국팬클럽 쌀 110kg, 아디다스 쌀 200kg, 어빌리티시스템즈 쌀 160kg, 영란여중 과일 20box, 옥곡교회 쌀 40kg, b1이찬원 김치/쌀/소금, 장재경 쌀 80kg, ㈜이브자리 이불50채,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김치 350box, 라면 350box, 하늘농가 연근 63box, 한국장학재단 쌀 940kg, 허벌라이프 비타민, 단백질바, 호식이두마리치킨 쌀 8000kg, 일일 치킨배식, 화약산농장건강원 오이지, 김치, 장아찌 등</p>
<p>다일천사병원& 작은천국 후원회원 및 후원물품 10.25~12.16</p>	<p>C체널방송팀(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대성교회(후원금, 굴3박스), 사랑의교회(후원금), 서울복지재단(김치10kg4박스), 서울지방경찰청(세탁세제, 생활용품), 소망교회(떡5박스, 각종과일30박스), 연대핵의학과(후원금, 의약품), 조옥희(고추가루10근)</p>

Thanks to

<p>캄보디아다일공동체 후원회원 10.21~12.16</p>	<p>경주지역노사민정협의회, 김강우, 김성재/이시은, 김세진/김우현/김이영, 김용기, 김재준(충주4H), 김현석(동일레미콘㈜대표), 대구달서구의회, 대박, 박봉렬(보성읍교회), 박주희, 배영실, 비인성결교회, 사랑의교회(이천식목사),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 서병철/선하/서재진, 신아원(대표이사:황성수), 양윤정, 오예희, 이중기(㈜한양여행사대표), 일산제자광성교회, 임광호, 자양중학교(이예열, 김지승, 이나현, 홍예지, 신윤철), 장복순(제천자원봉사센터-수화손짓사랑팀), 정현철(영암군4H),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제천영육아원, 충북도립대학교학처, 충주애플라이온스클럽, 카도, 하나투어남해점해오름여행사, 허윤정/유광정/윤영웅/김태윤/김시윤/박신애</p>
<p>중국다일공동체 후원회원 10.25~12.16</p>	<p>권윤경, 김성재(Obey & Praise), 무명(신길롱 친척), 무지개 애심협회, 민경식, 박려나, 박려하, 포스코 건설</p>
<p>탄자니아다일공동체 후원회원 10.21~12.16</p>	<p>후원금 박성주, 조준영, 탄자니아한인교회 허준, 홍민자, 후원물품 손광주(모기장 50개), 임성미(케첩 36개, 오이피클 204병, 머스타드 소스 36개, BBQ 소스 36개)</p>
<p>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회원 10.21~12.13</p>	<p>A PLUS, ASIA, MAX VINA, NAHAL, POS-SEA, THANH CONG, VEGAS, 기업은행, 닥터 카, 대우인터내셔널, 롯데리아, 박연희,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오경숙, 포스코SOUTH, 한동이앤씨, 호치민중앙교회, 호치민한인여성회</p>
<p>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회원 10.21~12.16</p>	<p>김경아, 김재숙, 박희선, 엄인자, 유상진(영암교회), 이양희, 최순희, 한성주</p>
<p>네팔다일공동체 후원회원 10.21~12.16</p>	<p>Bhuban Timsina, He min(중국), Living Stone Academy, Muna,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김용덕, 김유정, 김찬호, 네팔한인교회 주일학교, 무명, 박선화, 박영준, 박요셉, 박용대, 불이학교(교양시)학생, 선병석, 유승현, 유승현, 이숙의 스마일, 조경민</p> <p>성탄특별후원금 강경림, 구순림, 김숙자, 김영진, 김은숙, 김장후, 김정윤, 김현석, 김호광, 라미숙(안경사랑), 문병용, 박미자, 박미희, 박성자, 박인준, 양정택, 오정순, 오정원, 오현주, 우재희, 이광홍, 이숙의, 이정희, 임우경, 장선혜, 정선희, 정진영, 조미숙, 최희성, 한남대 벗님일동, 한호포럼, 허한나</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라이스팻릴레이(생쌀이운동)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와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위한 캠페인입니다.(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라이스팻릴레이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생쌀이운동)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40926776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미주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미주다일공동체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dailusa.org)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 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 및 다양한 방법으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복지재단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130-8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다일작은천국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Tel. 031-585-2004

다일평화의 마을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070-8220-3940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433, Hunchun Xijie, Hunchun Shi, Jilin Sheng, China
Dail Children's House
Tel. 070-7792-5451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Post Box #25655, Kathmandu, NEPAL
Tel. 070-8201-5833

포카라 지부

Sahara Bal Primary School, Pokhara 9 Shivatole, NEPAL
Tel. +977-98511-62280

우간다 다일공동체

Tel. 070-8271-1955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1 Greenwoods, Paliparan #1
Dasmarin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 No.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070-4099-8686

베트남 다일공동체

D19-07, New Saigon Building, Nguyen Huu, Tho St. Nha
Be, Hcmc, VIETNAM
Tel. 070-8220-6160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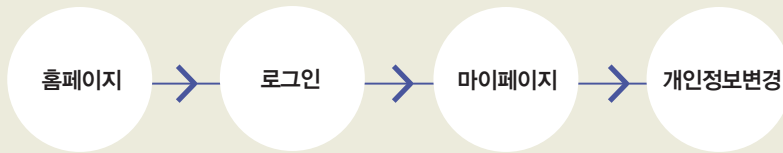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Tel. 1-416-604-7703

기부금 영수증

2014년에도 다일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후원가족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 >> 기부금 영수증이 올바른 주소지로 발급되도록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신 후 후원하신 내역 확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 02-2212-8004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다일복지재단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다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www.dail.org



>> 우편수령하기

2015년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후원금액 합산기준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납입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는 12월 17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4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지로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12월 24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4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1만원 ____구좌 일대일아동결연(월 3만원) ____명 기타 ____명

일시후원

라이스팃릴레이(생쌀이운동)
 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기타 ____명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____구좌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구좌
 다일아너스클럽회원(1구좌 1억원) 유산 10% 기부회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 여)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SMS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 발송 우편물 미발송

CMS 자동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기부금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_____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동의됩니다.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dail

보내시는 분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다일영성생활수련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62기 2월 16일~20일(4박 5일)

163기 4월 20일~24일(4박 5일)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47기 1월 26일~30일(4박 5일)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18기 2월 9일~8일(5박 6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다일 수련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을 새롭게 체험한 저에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혜승범(영화배우)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화 031.585.2004, 010.6375.8004
 홈페이지 www.dai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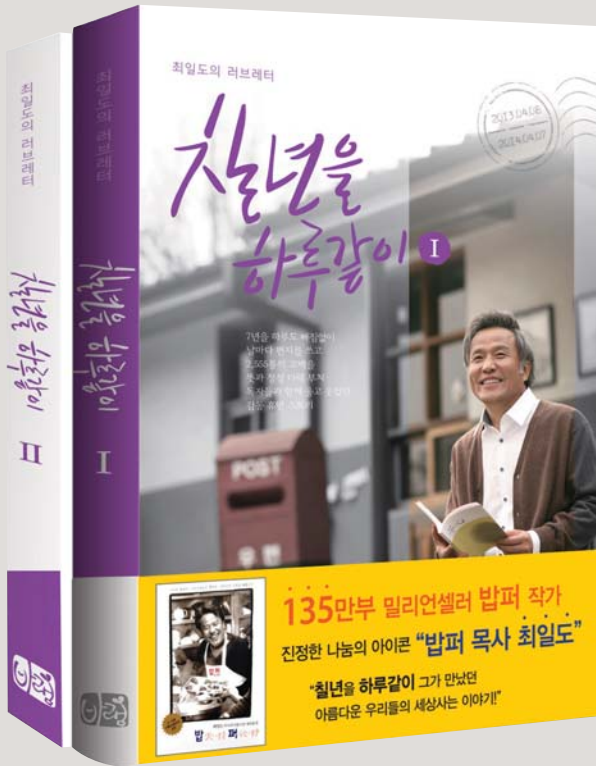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135만부 베스트셀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작가

진정한 나눔의 아이콘!

“밥퍼 목사 최일도” 신간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사연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사연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가격 / 권당 12,500원 / 두권 한세트 25,000원

이 책의 인세 수익금은 다일공동체를 통해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